

# 사회적 변화에 의해 사육수 급증

□ 취재/이유혁 기자

**국**내에서 사용되는 육용 종계는 그 사육규모나 시설에서 다른 국가에 비하여 손색이 없고 심지어는 외국으로 병아리를 수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종계 적정 수를 넘어 실용 병아리 과잉 생산 규모로까지 확장되어 병아리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 최근에 들어 국내 육용 종계의 사육규모와 발전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70년대 이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한국 전쟁으로 국내 양계산업은 매우 힘들었던 시기였다.

이 당시에는 종계라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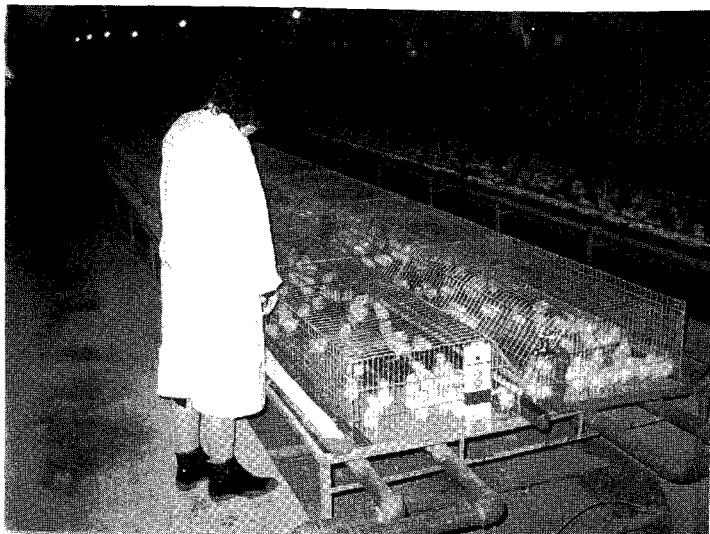
조차 없이 산란계에 육용계 또는 겸용계를 교잡하여 병아리를 생산했고 부화는 자연부화 또는 석유부화기에서 작은 양의 병아리를 생산했다.

이 시기('50년대 초)에 외국

에서 종란으로 21만개가 도입이 되었다. 당시에는 매우 많은 숫자였는데 국내의 시험장이나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들여 왔으며 일부는 대형부화장(동신부화장, 천호부화장)에



△ 방사사육



△ 케이지 사육(육추과정)

서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입이 추진되었다.

표1. '60년대 종계수입 현황

구분	GPS (수수)	PS (수수)	종란 (개)
'65		15,640	
'66		0	
'67		28,522	5,294
'68		61,945	
'69	2,000	124,053	
'70	2,000	200,515	

종계사육 수수라고 할 수 없는 양이지만 적개는 몇십수에서 크기는 1~2천수를 사육하는 곳도 있었으며 '60년대 중반('65년)부터 외국에서 PS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GPS는 '69년도에 처음으로 2천수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PL의 숫자도 상당히 많이 들어 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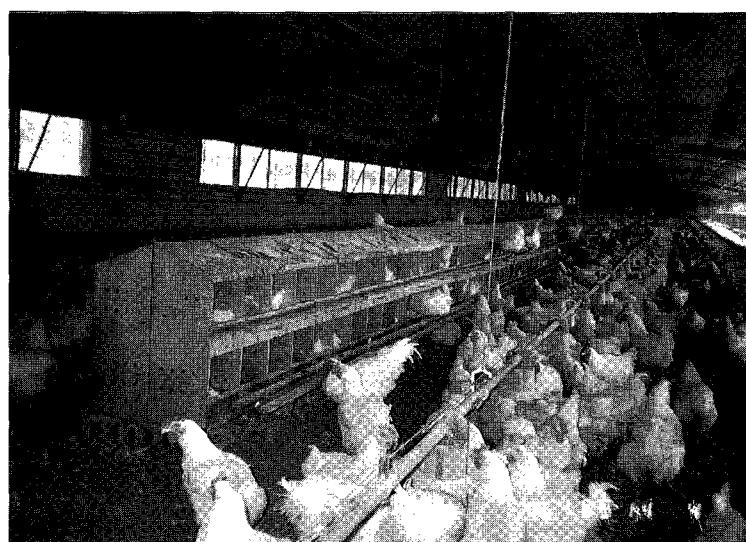
으며 수입한 곳은 미국, 일본, 영국 등으로 수입선이 다양했다.

종계 5백수를 사육한다면 당시 일반 대도시 직장인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 2. '70년대~'80년대 초반

외국 종계가 많이 들어와 국산계가 만들어져서 생산에 들어갔다. 또한 수입 종계가 들어왔지만 국내 사육시설과 기술 부족으로 많은 종계장에서 실패를 하자 국산 종계가 빠르게 번져나갔다.

그 대표적인 종계장이 동신



△ 초창기 평사사육

표2. '70년대 종계수입현황

구분	GPS (수수)	PS (수수)	종란 (개)
'71	11,950	291,144	
'72	10,750	135,800	7,000
'73	20,195	134,295	
'74	6,250	74,020	
'75	3,000	29,280	
'76		1,400	1,080
'77		57,785	
'78	28,785	128,160	
'79	23,208	278,410	
'80	21,470	76,995	

부화장(전 한협)인데 육용계 또는 겸용계 등과 산란계우을 교집하여 한협 - 603이라는 것을 개발하여 국내 종계장과 실용계 농장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이 품종은 산란계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산란율이 높았으나 사료효율이나 성장율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였다.

603이라는 것이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뒤에 개발된 국산 종계가 거듭해서 실패를 함으로 국산 종계의 생산은 많이 감소되었지만 지금도 여러 종류의 국산계를 일부 육종회사와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2년 동안 외국 원종계 도입을 제한하여 국산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시기이

다.

국산 종계와 일부 외국 종계만으로 병아리 생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시기라 할 수 있으며 국산품장려운동이 많이 있었던 시기다.

사육수수도 많이 늘어나 국내 사육 종계의 수가 1백만수 이상이 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농가당 사육규모도 초창기 보다 많아져서 몇만수씩 사육하는 곳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많이 증가되었던 이유로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면서 닭고기 수요가 늘어 종계의 사육수수는 자연히 증가를 했고 실용계도 같은 형태를 나타내었다.

축협중앙회에서 통계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한 '81년 12월에 종계가 190만수였으나 '87말에는 290만수로 그 증가 폭이 커졌다.

### 3. '80년대 후반에서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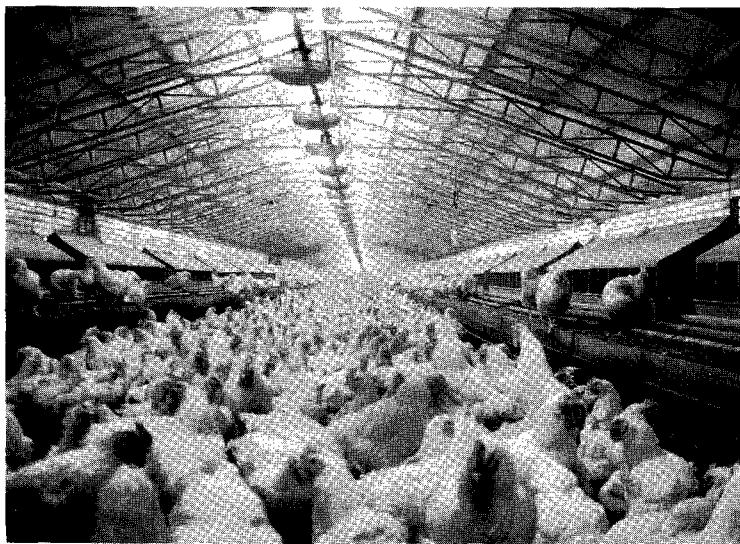
이 시기가 국내 종계산업에서 종계수수가 가장 많아 늘어난 시기로 '81년에 비해 '96

년 12월 현재 국내 보유종계는 무려 270%나 증가되었다.

국내 사육기술의 발달과 시설의 현대화가 되면서 사육수수가 증대되면서 국산계보다는 정육 생산이 많은 외국계가 들어왔고 그에따라 종계도 많은 양이 들어왔다.



△ 개방 계사



△ 최근 무창계사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89에 걸쳐 종계장들은 대형화가 되었고 사육수수도 대폭 늘어났다. 일반 종계장들도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입식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그리고 '91년도 이후로 계열화사업이 추진되면서 계열업체에서 병아리를 충당하기 위해 자체 종계를 확보해 나가면서 종계사육수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기존의 종계장에서 종계를 사육을 하지 못하자 위탁생산이 늘어나 자체 종계는 많지 않으나 생산량이 많이 늘어 났다. 다시 말해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종계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분양되는 양이 많아져서

병아리 값의 하락을 부추기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형종계장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중소 종계장들은 생산비를 맞추지 못해 도산하거나 시설을 늘리고 있는 실정에 있다.

#### 4. 종계품종 및 사육방법의 변화

'60년대에는 일제하에 있을 때부터 사용하던 종계를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외국에서 종계를 많이 수입하였다. 13개 품종(국산계 포함)이 있으나 현재

는 '60년대말보다 6개 품종이 많은 19(국산계 포함)개 품종보다 약간은 감소하였다. 그 품종도 많이 바뀌어 사라진 것도 있는 반면에 많은 수가 새로 생겼다. 초기의 모든 종계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사와 배터리 사육을 했으나 케이지가 보급되면서 사육수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전문 수정사나 사육사들의 부재로 생산성이 저하되자 평사사육으로 많이 전환을 하였다.

#### 5. 결론

순수 육용 종계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의 종계를 수입하고 국내 종계를 자체 개발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발전을 해왔다. 현재는 다른 국가에 육용 종계(PS)를 수출을 하는 실정에까지 왔다. 그러나 나름대로 국가를 상징할 만한 품종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긴하다. 앞으로 국내 종계의 적정수준을 맞추어 국내 병아리 가격과 생산비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고 과거의 사육시설이나 자료를 남겨 후대에 새로운 육종 방향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양기